



금리인하가 보험회사에 미치는 영향

조용운 연구위원, 정인영 연구원

요약

■ 2016년 6월 9일 기준금리가 1.50%에서 1.25%로 조정됨에 따라 향후 보험회사의 성장성과 수익성 및 재무건전성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금리 하락은 보험료 상승으로 이어져 신계약 판매를 위축시키고, 금리역마진 확대에 당기순이익을 감소시킴. 또한 금리 하락은 금리역마진위험액 확대에 따른 요구자본을 증가시켜 장기적으로 재무건전성을 악화시킬 것으로 예상됨. 이에 따라 보험회사는 재무건전성 관리를 위해 코코본드 발행 등을 통한 자본확충, 경영합리화, 그리고 새로운 투자수익처 발굴 등 다양한 경영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2016년 6월 9일 금융통화위원회는 기준금리를 1.50%에서 역대 최저수준인 1.25%로 조정하여 통화정책을 운영하기로 결정함.

- 금융통화위원회는 수출이 감소세를 지속하고 소비 등 내수개선이 부진함에 따라 올 4월 전망하였던 성장경로의 하방위험이 커진 것으로 판단함.¹⁾
- 또한 올해 하반기에 기업 구조조정이 본격화될 경우 실물경제와 경제주체 심리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우려하여 선제적인 통화정책 대응을 실시하게 됨.

■ 금리인하는 보험회사의 성장성과 수익성 및 재무건전성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 금리인하로 인해 예정이율²⁾이 하락하는 경우 보험료가 상승할 가능성이 있으며, 금리연동형 상품에 적용되는 공시이율³⁾이 낮아질 경우 환급금이 감소하여 신계약 판매가 위축될 가능성이 있음.
- 또한 채권⁴⁾ 투자비중이 높은 보험회사의 경우 금리하락은 금리역마진을 확대시키고 당기순이익을

1) 한국은행 보도자료(2016.6.9.), “통화정책방향”.

2) 예정이율은 보험사가 상품을 기획할 때 보험료를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이율로, 보험회사가 계약자로부터 수취한 보험료를 자산운용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예상 수익률을 의미함.

3) 공시이율이란 보험회사가 보험개발원에서 공표하는 공시기준 이율을 감안하여 일정기간마다 금리연동형 보험 상품에 적용하는 이율로, 은행 정기예금 이율, 국공채 및 회사채의 3년 만기 이율, 자산 수익률 등을 조합하여 산출함.

감소시켜 수익성 악화를 초래함.

– 저금리 장기화로 인해 운용자산이익률 감소폭이 보험부채 부담이율 하락폭보다 크게 나타나면
서, 2015년 말 기준 금리역마진 갭은 0.76%p까지 확대된 상황임.⁵⁾

● 금리하락은 금리역마진위험액⁶⁾ 확대에 따른 요구자본을 증가시켜 장기적으로는 재무건전성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함.⁷⁾

– 저금리 장기화로 금리역마진위험액은 2014년 1조 1,926억 원에서 2015년 2조 7,070억 원으로 증가하였으며, 지급여력기준금액 대비 금리역마진위험액 비중은 5.86%에서 10.25%로 증가함.

■ 보험회사는 향후 한국은행의 금리정책 기조에 대해 면밀한 모니터링을 하고 금리하락에 대비해 자본확충, 경영합리화, 투자수익처 발굴 등 다양한 경영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 정책금리는 향후 대내외 충격요인을 감안할 경우 추가적인 인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 보험회사는 재무건전성 관리를 위한 자본확충의 일환으로 신종자본증권 세부인정 요건을 만족하는 조건부자본증권(CoCo bond: contingent convertible bond) 발행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조건부자본증권이란 발행 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정의된 사유가 발생할 경우⁸⁾ 투자 원금이 주식으로 강제 전환되거나 상각된다는 조건이 붙은 회사채임.
- 또한 금리하락으로 채권수익률 하락이 불가피하므로, 중수익 투자편입비중 확대 등과 같은 수익률 개선 노력이 필요함. **kiri**

4) 기준금리인하 당일(2016.6.9.) 국채 3년물 지표금리는 전일대비 3.3bp 하락한 1.345%를 기록하였으며, 5년물과 10년물의 금리도 전일대비 각각 4.4bp, 3.7bp 하락한 1.425%와 1.660%를 기록함.

5) 생명보험회사의 운용자산 이익률과 보험부채부담이율은 각각 4.01%, 4.77%임(예금보험공사 2016).

6) 보험계약 적립이율이 시장이율을 초과하여 향후 1년간 발생할 예상손실로, 보험료적립금에 대한 부담이자와 시장금리로 측정한 운용자산수익 간 차이의 50%로 산출함.

7) 단기적으로 금리하락은 자산평가이익의 증가에 따른 가용자본 증가폭이 금리역마진 위험 증가에 따른 요구자본 증가보다 크게 되어 RBC 비율이 개선되는 효과가 있음. 그러나 장기적으로 부채를 시가평가하게 되면 금리하락이 자산평가손을 초래하게 되어 가용자본이 감소하게 됨. 따라서 장기적으로 금리하락은 가용자본 감소와 요구자본 증대로 이어져 RBC 비율을 하락시키게 됨. 현 감독회계제도에서는 부채가 완전하게 시가평가되지 않아 금리인하가 자산평가이익으로만 반영되어 가용자본이 증가함에 따라 역설적으로 RBC 비율이 상승하는 효과가 있음.

8) 「은행법」 제33조 제1항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법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11 제1항 참조.